



축구장에 온 산타 18일 오후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흥명보 자선축구 '하나은행과 함께하는 쉐어 더 드림 뜻풀매치 2011'에서 흥명보 을림픽대표팀 감독과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축구 대표팀 감독 연봉 100만달러

에릭손·귀네슈·동가...

난립하는 설...설...설...



대한축구협회가 축구대표팀을 이끌 새 사령탑의 연봉은 100만 달러(약 11억원) 수준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축구협회의 고위 관계자는 18일 "황보관 기술위원장이 중심이 돼 찾고 있는 새 감독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당사자와 급여 수준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조율을 하더라도 전례를 떠올 수밖에 없다"며 파격적인 연봉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 팀을 4강으로 이끈 거스 히딩크 감독은 당시로는 파격적인 100만 달러 수준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대 한국 대표팀 사령탑으로선 최고 대우였다. 히딩크 감독의 뒤를 이어 자취봉을 잡은 웜베르투 코엘류 감독이 70만 달러를 받았고, 요하네스 본프레데 감독과 딕 아드보카트 감독은 각각 65만 달러와 100만 달러가량의 연봉을 받았다.

이런 배경에서 축구협회는 새 감독의 연봉 상한으로 100만 달러 정도를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대표팀을 이끌 새 사령탑 후보로 외국인 감독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이를 대부분은 현재 또는 최근까지 축구협회의 기준을 크게 웃도는 연봉을 받아 귀족과 주목되고 있다.

축구협회는 국가 대표팀을 맡은 경험이 있고, 한국 선수들과 한국의 정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지도자를 차기 사령탑의 자격 요건으로 정했다. 이런 조건에 가장 들어맞는 인물로는 히딩크 감독이 1순위에 올라 있다.

그러나 최근 터키 대표팀을 그만들 때까지 그가 받은 연봉 수준은 60억원 대를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K리그 FC 서울을 맡았던 터키의 세뇰 귀네슈 감독도 후보군에 들어 있다.

하지만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터키 대표팀을 이끈 그는 현재 터키 프로축구팀 트라이브존스포르를 지휘하면서 20억원대의 연봉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귀네슈 감독을 영입하고 싶어도 연봉 수준을 조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이탈리아 축구대표팀을 이끌었던 마르첼로 리파 감독이 후보 물망에 올라 있지만 지난해 남아공 월드컵 당시 410만 달러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적은 연봉을 감수하면서 한국으로 옮겨 불투명하다.

2006 독일월드컵에서 브라질 대표팀을 이끌다가 4강 진출에 실패하는 바람에 경질된 카를루스 동가 감독과 잉글랜드 대표팀을 맡았던 스벤 요란 에릭손 감독도 태극 전사들을 지휘할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동가 감독의 이전 연봉은 125만 달러로 알려졌다. 에릭손 감독은 잉글랜드 사령탑(2001~2006년) 시절 폼값이 500만 파운드(약 900억원)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연봉이 100만 파운드(약 18억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축구협회는 그동안 대표팀 감독과 연봉 외에 옵션을 넣는 계약을 해 왔다.

축구협회는 이번에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게 되면 연봉은 이전 수준으로 둑으면서 옵션을 붙여 보너스를 높이는 방법을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축구 산타들 희망의 25골

흥명보 자선축구 ... 2002 월드컵 4강 추억의 골 세리머니

축구 스타들이 연말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여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온정을 전했다.

흥명보장학재단은 18일 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하나은행과 함께하는 쉐어 더 드림 뜻풀매치 2011' 행사를 열었다.

재단 이사장인 흥명보 을림픽 대표팀 감독이 2003년부터 해마다 성탄절에 개최한 자선축구 경기로, 올해는 실내에서 조금 일찍 열렸다.

추위로 팬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프로농구가 열리는 코트를 뜻살장으로 깔끔하게 단장했다.

선수들은 2002년 월드컵에서 태극전사들이 펼친 반지 키스, 오노 반칙, 주먹 휘두르기, 애기 걸음마 등 다양한 골 세리머니를 재

에서 내로라하는 선수들이 총출동했다.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인공인 안정환·김태영·이천수·이용수·최용수·이영표·최진철·이운재·최태욱·최성용·이민성·김병지 등이 참여했다.

2011 K리그 신인왕 광주 FC의 이승기와 여자 축구선수 여민지·심서연, 야구선수 김현수, 개그맨 이수근 및 을림픽 대표팀의 주축 선수들도 가세했다.

스타들은 멋진 발색간, 포지션 바꾸기, 이색 골 세리머니 등으로 관중에게 불거리를 선사했다.

선수들은 2002년 월드컵에서 태극전사들이 펼친 반지 키스, 오노 반칙, 주먹 휘두르기, 애기 걸음마 등 다양한 골 세리머니를 재

연했다.

프로야구 두산의 좌익수 김현수는 골키퍼로 나서 수차례 슈퍼 세이브 실력을 보여줬다. 골키퍼 정성룡은 펠트 플레이어로 나서 숨은 발재간을 자랑했다.

해외 무대에서 활동해 그동안 국내 팬들에게 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안정환과 이천수도 출전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개그맨 이수근은 막판 결승골을 포함해 무려 다섯 골을 몰아넣어 희망팀의 13-12 승리를 이끌었다.

올해 자선축구 행사의 수익금은 투병하는 할머니와 단둘이 생활하는 정소영 양과 소아암 어린이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들을 돋는 데 사용된다.

/연합뉴스

## 광주 FC 2011시즌 일정 마무리

광주 FC의 2011시즌 일정이 마무리 됐다.

광주 FC 선수단이 17일 마무리 훈련을 끝내고 휴식에 들어갔다.

광주는 지난달 21일부터 동계 훈련에 돌입, 기초 체력훈련과 전술훈련을 소화하면서 시즌을 정리하고 내년 시즌에 대한 밀그림을 그려왔다.

최 감독은 "신인들은 큰 문제 없이 팀에 적응이 잘 됐다. 팀이 가지고 있는 컨셉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작훈련을 통해 팀에 빨리 녹아 들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휴식기간 광주의 공격력에 힘을 실어줄 용병 영입 작업은 계속된다.

브라질에서 용병 블랙 작업을 벌였던 여범규 수석코치가 호주로 출국해 '조커' 찾기에 한창이다.

최 감독은 "2월 전에는 선수들이 다 준비

되어 하는 만큼 다음 주까지 여범규 코치가 호주에서 용병 선수를 살펴보고 올 것이다. 기존의 선수에 외국인 선수로 공격력을 보강해서 전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한다"며 "2012년 강등제가 실시되는 만큼 시민구단 광주에게는 어렵고 중요한 시즌이 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한편 선수단은 내달 3일까지 달콤한 휴식을 취한 뒤 목포와 중국에서 2012시즌을 위해 본격적으로 훈련에 들어간다.

광주에서 내달 4일부터 합동훈련을 갖고 몸을 푼 선수단은 9일 목포로 이동한다. 9일 강릉시청과의 연습경기를 갖고 전지훈련 첫 일정을 시작하는 선수단은 23일부터는 중국으로 건너가 치열한 주전경쟁을 벌이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일

루마썬팅 | 3M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  
자외선 차단 끝자동차 앞유리 썬팅  
자동차 차단 (기미, 주근깨, 겹버섯, 예방효과)  
뜨거운 태양 (열차단)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샤크안테나  
자동차경비일체, 냇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샤크안테나  
자동차경비일체, 냇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바닦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이자카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국내최대 500평매장  
주차장 700명 주차걱정 끝

Llumar



천연가죽시트



타이어 | 휠 | 경정비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 3M

